전남 대표 조선사 구조조정 발표 두달

대한조선 회생 개시 / C&중공업 상장 폐지

채권단, 1,700억 신규자금 지원

정부의 조선업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대표적인 신생 조선업체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조선은 워크아웃 계획 확정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C&중공업은 워크아웃 개시 무산에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끝내 퇴출됐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C&중공업과 C&상선, C&우방 등 C&그룹 3사와 기린, 신성건설, 케이엠에이치 등 모두 6개사의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C&중공업 등 6개사는 모두 지난해 실적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80조 및 94조에 의해 상장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C&중공업 주식은 29일까지 상장폐지 예고 기간을 거쳐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3일 상장이 폐지된다.

C&중공업이 발행한 주식은 2천31만주(보통주)로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C&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난 2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거래정지 당시 C&중공업의 주가는 주당 2천350원으로 시가총액은 47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이 폐지되면 사실상 증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C&중공업 주가는 특히 거래정지 직전 해외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배 가량 급등했는데 당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기대한 투자자 피해 우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상장이 폐지되기는 최근 2년새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한조선은 지난 24일자로 채권단이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고 1천7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회사 정상화의 길로 접어 들었다.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과 함께 보유한 채권에 대한 상환을 2013년까지 유예하고 금리도 담보는 3%, 무담보는 1%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지난 2월과 3월 7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은데 이어 이번에 1천700억원을 받게 되면 2천4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며 "주문받은 선박을 제때 선주에게 인도하는 등 회사 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서 대규모 수출상담회

韓商대표 650명·181개 기업 참여… 내일 김대중컨벤션 센터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제3전시장에서 열리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수출상담회에 해외 바이어 650여 명과 181개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광주지역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지역 내 77개 중소기업을 포함해 181개 업체가 참여하며, 세계 40개국 79개 도시의 해외 한인 무역인 대표자와 경제·무역업에 종사하는 해외동포 등 650여 명이 전시부스와 상담테이블에서 수출상담 등 활동을 통해 수출계약을 비롯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수출상담은 모두 8개 분과로 나눠 국내외 기업 92개의 부스와 89개의 상담 테이블에서 진행된다.

지역에서는 ▲터전 등 천연·바이오섬유 관련 5개 업체 ▲한국제다 등 식품 관련 15개 업체▲글로벌광통신 등 광·신재생에너지 관련 21개 업체 ▲서암기계공업(주) 등 기계·금형 관련 16개 업체 ▲이앤비테크 등 전열·건설 관련 6개 업체 ▲(주)서희정보기술 등 예술·게임 등 관련 4개 업체 ▲바이오닉스(주) 등 건강식품·의료 부문 10여 개 업체 등이 참여한다.

수출상담회에서는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홍보와 광·금형·비엔날레 등 유관기관·단체 및 World-OKTA 후원기관으로 구성된 홍보관 20개 부스, 광주 김치 '감칠배기'와 떡 '예담은'의 시식코너도 운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World-OKTA(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상임집행위원들이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집행위원회의를 갖고 있다. 세계 40개국 79개 도시 동포기업인들이 참가하는 World-OKTA '제11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는 오는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입찰 정보에서 기업 상품 홍보까지

포털사이트 '비즈 북구' 북구청 내달 1일부터 운영

광주시 북구가 입찰정보 등 각종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홍보도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 종합 포털사이트인 '비즈북구'(www.bizbukgu.or.kr)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광주시 북구는 27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관내 1천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종합 포털사이트 '비즈북구'를 구축,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즈북구는 실시간 입찰정보와 원자재 물가정보, 고객 관계관리(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통합 메시징 서비스(UMS·Unified messaging system)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광고를 만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 상품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실시간 산업뉴스를 비롯한 구인·구직정보, 신기술 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포털 사이트는 북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내용을 갱신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지역 내 기업체는 모두 1천2개(소기업 957개, 중기업 42개, 대기업 3개)로 광주지역 3천287개의 3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입 수산물, 지역특산품 둔갑 막는다

광주세관 영광굴비 등 보호

광주세관이 영광 굴비, 광양 재첩, 신안 홍어, 여수 쥐치포 등 지역특산물 지킴이로 나선다. 수입산이 이들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광주세관은 27일 영광굴비특품사업단과 영광굴비 브랜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특산품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최근 중국산 굴비를 영광 굴비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일부 업체로 인해 실추된 영광굴비의 명성회복을 위해 양 기관간 전담연락창구 개설, 원산지 위반행위 합동단속 등 민·관 상호협력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세관은 본부세관에 '특산품 지킴이' 본부를 설치, 산하 세관과 합동으로 지역특산품 브랜드 보호와 지원을 확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양세관은 제첩, 목포세관은 홍어에 대한 브랜드 보호 및 지원에 각각 나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